

문화재생의 현장, 부천아트벙커B39를 둘러보니

# 부천아트벙커 B39

## 불꺼진 소각장, 아트팩토리로 되살아나다

국내 최초 소각장 리모델링... '문화공장'으로 탈바꿈 39m 벙커 '에어갤러리'로 연결... 카페 등 휴식 공간도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할 '상무소각장' 벤치마킹 필요

한여름의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30일, 광주시,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건축·문화 전문가 등 55명이 경기도 부천아트벙커 B39를 방문했다. 이들이 무더위에도 부천을 찾은 이유는 최근 지역의 화두로 떠오른 상무소각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광주시는 지난 2016년 12월 폐쇄된 상무소각장을 건물의 특성과 장소성을 살린 복합문화 커뮤니티타운으로 리모델링하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하지만 시립도서관, 복합문화시설을 골자로 한 이번 리모델링 계획이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으려면 단순한 공간의 재활용을 넘어 광주의 문화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발전소로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화적 도시재생의 성공모델로 떠오른 부천아트벙커 B39의 역동적인 현장을 둘러봤다.

〈편집자 주〉

지난달 초 자동차 네비게이션을 따라 도착하니 예상과 다른 건물이 등장한다. 길을 잘못 찾은 게 아닌가 하고 당황하던 순간, '부천아트벙커 B39'라고 적힌 한글 간판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목격자인 부천아트벙커 정문이다. 영문과 한글이 나란히 적힌 검은색 철골구조입구와 감각적인 안내문이 산뜻하다. 옛 소각장을 리모델링한 곳이라고 해서 삭막한 외관을 기대했던 게 무색하다.

입구에 들어서자 트럭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사각 아치 모양 기둥이 나온다. 쓰레기 트럭이 들어오면 쓰레기양의 무게를 재던 소각 프로세스의 첫 시작인 '#계측장소'다. 모던한 디자인의 대형 천막을 둘러싼 옛 관리동 건물을 지나 1층 입구에 다다르자 철조망에 '#쓰레기 저장소(벙커)'라는 안내판이 눈에 띈다. 높이가 39m에 이르는 거대한 콘크리트 벙커다. 10여 년전 만 해도 부천시 전역에서 수거된 쓰레기들로 가득 찼던 곳이다.

이처럼 주요 시설을 그대로 살린 덕분에 쓰레기 소각의 이동 경로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부천아트벙커39라는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 'B'는 부천의 영문표기(Bucheon)와 벙커(Bunker)의 약자. 39는 소각장 벙커 높이 39m를 뜻한다.

하지만 부천아트벙커의 강점은 장소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 콘텐츠에 있다. 건물 내부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39m의 벙커는 과거 소각로였던 '에어갤러리'로 연결된다. 소각로 시설을 일부 떼어내고 유리를 설치해 밖에서 보면 마치 유리온실 느낌의 중정으로 리모델링한 곳이다. 에어갤러리에선 공간의 '스케일'에 최적화된 다양한 설치미술과 미디어아트전이 연중 펼쳐진다.

마침 취재를 갔던 기간에는 사회적 기업 '노리단'의 페타이어와 폐자재로 만든 업사이클 악기체험전이 열려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일반 미술관의 전시장이나 갤러리와 달리 층고가 높아서 인지 관객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할 때 나오는 소리의 울림이 인상적이었다. 노리단은 시로 부터 부천아트벙커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건물 2층에는 중앙제어실과 4개의 스튜디오, 사무실이 있다. 옛 소각장의 흔적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중앙제어실에는 수많은 버튼과 오래된 TV 모니터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마치 공상과학영화 속의 우주선 내부를 보는 듯 하다. 다소 삭막한 이곳에서 발걸음을 옮기면 알록달록한 4개의 유리벽 스튜디오가 기다린다. 시민이나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열리는 장소다.

부천아트벙커의 투어를 마친 후에는 1층에 꾸며진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소각장의 기능을 살린 내부 인테리어는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 일부러 방문하는 이들이 많을 만큼 명소가 자리잡았다.

지난해 6월 개관한 부천아트벙커는 국내 최초의 소각장을 리모델링한 재생사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8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 수상한 게 한 예다. 불과 9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1995년 준공된 부천 삼정동 쓰레기소각장은 하루 200여톤의 쓰레기를 소각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2010년 대장동에 새로운 소각장이 생기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특히 1997년 전국적인 이슈가 된 다이옥신 파동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삼정동 소각장은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다이옥신(㎍당 23.12㎍)을 뿜어내고 있었다. 시설 재정비 후 소각장은 다시 가동됐지만, 도시가 팽창하면서 외곽에 있던 소각장은 어느새 도심안에 자리 잡게 됐다. 이에 부천시는 새로운 소각장을 지었고, 삼정동 소각장으로 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들로부터 주민센터, 도서관, 수영장으로 활용해달라는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부천시는 복합문화시설로 콘셉트를 잡고 2014년부터 95억원을 들인 '꿈의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전체면적 7200㎡ 중 소각장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3100㎡를 개방 공간으로 꾸몄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마을의제설정, 시민청안대회, 상황공유회, 간담회 등 철저히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방향을 잡아나갔다.

개관 기념전으로 기획한 프랑스의 비주얼 아티스트 기욤 마망의 'Light Matters'전은 부천아트벙커의 정체성을 보여준 자리였다. 무엇보다 거대한 공간이 주는 스케일과 웅복합 전시, 공연은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차별화된 콘텐츠라는 평가를 받았다. 부천아트벙커가 개관 1년만에 문화적 도시재생의 선진모델로 자리잡게 된 비결이다. 기존의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교류되는 '아트팩토리'(Art Factory)로 화려하게 되살아 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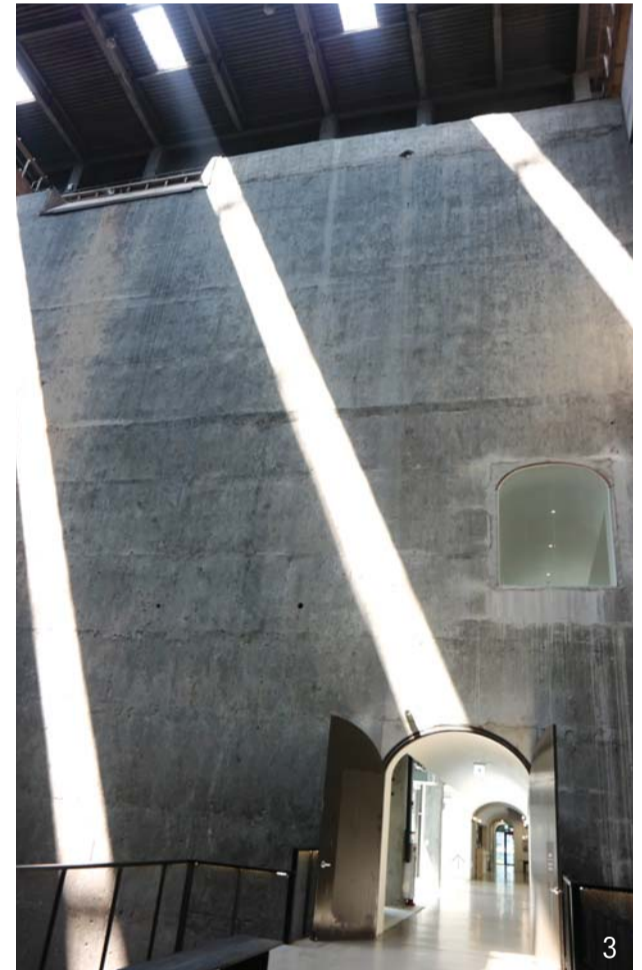
이처럼 부천아트벙커는 협오시설이 문화와 소통공간으로 변신한 국내 최초의 도시재생 현장이다. 특히 '상무소각장 재활용'이라는 숙제를 떠안은 광주시에게는 많은 생각거리를 준다. 실제로 지역의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상무소각장을 시립도서관, 전시실 등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추진하기로 한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상무소각장만을 위한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닌, 광주의 문화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되도록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건물과 다른 거대한 공간의 장소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문화발전지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술평론가 J씨는 "광주문화재단 인근에 다음달 착공되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MT센터)과 연계해 기능을 이원화 하는 전략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선정을 계기로 건립되는 AMT센터는 제주도의 옛 통신기지에서 개조되고 있는 '빛의 벙커'전과 부천아트벙커처럼 미디어아트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데는 공간적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이미 제주도와 부천의 '스케일'에 눈높이가 맞춰진 국내 관객들을 끌어들이려면 지상 3층, 지하 2층의 현 AMT센터(3000㎡) 규모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미디어아트의 플랫폼을 내건 AMT센터의 경우 전시실과 레지던시 등 여러 시설이 들어서면서 여타 미술관이나 문화시설과 별반 차이가 없는 평범한 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무소각장의 일부를 미디어아트 전시실로 활용하고 AMT는 레지던시와 교육공간으로 이분화하는 '공간의 재구성' 방안이 설득력을 갖는 것도 그런 이유다.

전남대 이효원(건축학부) 교수는 "부천아트벙커가 문화계 뿐만 아니라 건축학도들의 선진답사지가 된 데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한 시의 뒷받침이 있었다"면서 "상무소각장 뿐만 아니라 광주공원에 자리한 시민회관의 리모델링까지 큰 틀에서 접근하는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상무소각장의 리모델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부천=글·사진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1 부천아트벙커 B39의 정문 입구. B는 부천과 벙커의 약자이고 39는 벙커 높이 39m를 의미한다. 2 부천아트벙커의 대표공간인 에어갤러리 전경. 사회적 기업 '노리단'이 페타이어와 폐자재로 만든 악기들이 전시돼 있다. 3 부천아트벙커의 내부 모습. 4 모던한 디자인의 대형천으로 둘러싸인 부천아트벙커 외부 모습. 5 지난해 열린 '문고고'(MOON GOGO) 콘서트. 〈사진=부천시 제공〉